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11월 22일 (제1072 호)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닳고 싶은 분, 예수

목회 36년, 내가 닳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였다. 한때 모세를 닳아보려고도 했고, 바울을 닳아보려고도 했었다. 그러나 결국 그분들마저도 닳고 싶어 했던 분, 예수가 나의 롤모델이 되셨다.

하지만, 그분을 닳는 것이 쉬운 일일까. 낙 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했고, 나를 죽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했고, 만물의 찌꺼처럼 여김을 받아도 변명하지 않기로 작심해야 했다. 또한 꿈틀대는 자아를 쳐서 밑바닥까지 낮 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 해야 했고,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해야 하는 대양이 되어야 했기에 나는 눈물로 나 와 싸웠고, 지금도 거울을 보며 ‘이초석아, 너 왜 그랬어?’ 하며 나를 채찍질한다.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심성을 닳아가려는 나와의 싸움이다. 사도 바울은 부단히 예수님을 닳으려는 자신과 싸웠다. 그러다 지 쳤을 때 ‘오호라’ 하며 곤고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도 어떻게든 더 예수님을 닳으려고 노력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기에 애가 끊을 때가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침내 자신을 이기고 예수님을 닳았고,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고 했다.

예수를 닳기 위해서는 나를 이겨야 한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나,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나,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나, 편안을 추구하고 싶은 나와 싸워 이겨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차꼬를 채워 예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노예란 의지가 없기에 그렇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행복한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닳을 수 있다면, 또 내가 예수님을 닳은 것 같이 내 성도들이 나를 본받는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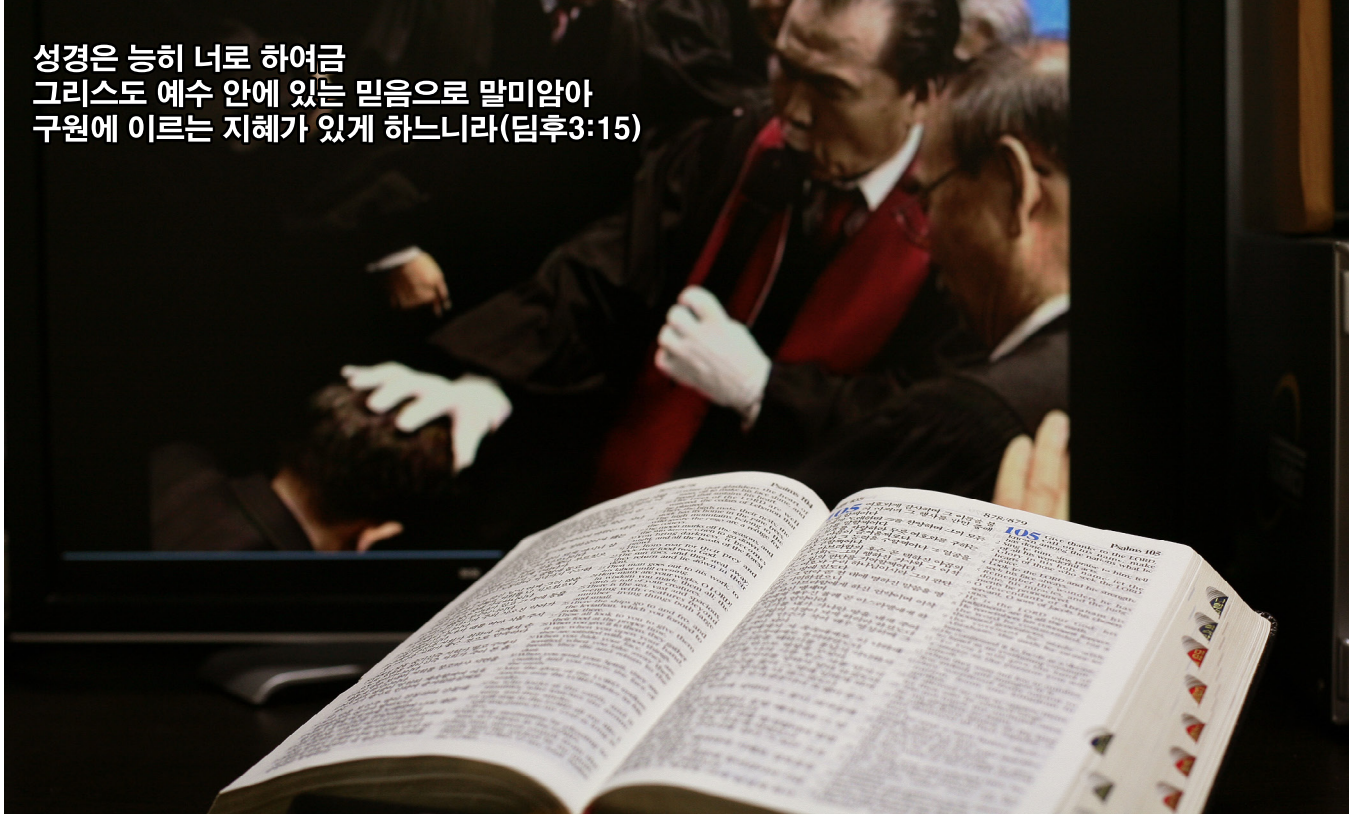
70이 넘는 나이인지라 내 겉모습은 후패하고 있으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예수를 닳아가기 때문이라. 언젠가 성화의 경지에 이르리라.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다

초대 예루살렘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로인해 사방으로 흩어져 전 세계 복음전파의 도화선이 된 것을 보면, 교회에 닳치는 위기는 나태해진 교회에 새 힘을 불어넣고 교회의 생명이라 할 복음전파의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뉴스에 오르내리고 그로인해 외부로부터 자극이 오는 것은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본래 우리 교회의 영적 본성을 되찾으라는 하나님의 채찍질이라 생각한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종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의 체계에 우리 성도들이 휘둘릴까 노심 조사하시는 것이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원수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 병과 가난과 저주

문제가 올 때, 위기가 닥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냐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길을 찾는 자, 방법을 찾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성경에 다윗을 보라.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해오는 사울의 겁박에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며 자빠졌다면, 제아무리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푸른 초장,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3:15)

목사님은 단에 서실 때마다 주의 종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첫사랑을 되찾아 기도하고 전도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셨다. 예전에는 모이면 밤이 되도록 기도했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귀신을 쫓으며 병을 낫게 했는데, 이제는 죄다 묵은 닭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88체육관이 닫혀서 영상예배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때 목사님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계절마다 기도원으로 몰고 들어가 영적 불을 지피며 성도들의 영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현실인고로 성도들 각자가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중국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의 비밀은 성령충만이다.”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는 길 외엔 다른 수가 없다는 말씀이다.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안일하게 준비했다가는 기름도 다 떨어지고 불도 꺼져 어둠 속에서 악한 원수들의 밥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사는 길은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 목사님을 따라.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왕도가 없다. “위기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자극이 왔을 때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사람을 좋아한다.”

받으며 이스라엘의 머리로 다윗의 영광을 이룬 것 아니겠는가. 목사님을 보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수많은 핍박과 모함 속에 과연 견뎌냈는가?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을 과연 일구어낼 수 있었겠는가? 목사님 스스로 간증하시듯,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오늘에 이른 것 아닌가? 우리가 샘플로 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 두려워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계속하자.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2:43~45)

영적 대각성의 혁명을 일으키자

이대론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단과 교회에 영적 대각성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닐진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일진대 무기도 없고 정보도 없이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의 전략 전술은 기가 막힐 정도로 교묘하고, 그것들의 체계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영악한데 우리는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고 있으니 그것들의 밥이 되고, 노예가 되어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 받고 죄와 저주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 자는 이긴자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2등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각성(覺醒), 이는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뜻으로, 영적 대각성은 잠자는 영혼이, 죽은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 간다

이 영적 대각성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충만에서 비롯됩니다. 웨슬리를 통해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도 성령충만을 입는 것에 그 초점을 맞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500문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1:4~5). 누가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눅24:49)고 적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으셨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불의 혀 같이 갈라지며 각자가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행2:1~4). 이처럼 방언은 성령의 외적 표징입니다.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한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 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데,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을 봐도 방언이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행10).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게 됩니다(행1:8).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고, 그에 따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는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충만을 잃으면 어찌 됩니까? 우리 삶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엄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 영인 성령도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빛을 잃으니 어둠만 가득할

밖에요. 어두우면 보이지 않아요.

어저 다치고, 도적이 들고, 어떤 게 죄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마디로 불이 꺼지면 귀신들의 천국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불이 꺼진 삶이 어찌 되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마12:43~45). 불이 꺼지니까 그 집에서 나갔던 귀신들이 열찌구나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떠돌던 다른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와 더 가난하게 하고, 더 심하게 병들게 하고, 더 안 되게 하고, 더 심한 풍파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병들고 가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을 다시 밝혀야 하는 이유

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시 입으면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면 당신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마12:28).

성령 충만함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막9:29). 성경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엡6:18)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한 시간이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7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90% 이상을 방언으로 기도하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 불과 천 불의 능력이 다르듯 한 시간 기도한 것과 일곱 시간 기도한 것과는 확실한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에서 그가 강을 건너는데 제일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그다음에는 강물이 허리에 차고, 그다음 해엄치게 되었다 했습니다(겔47). 성령 안에서 해엄을 쳐야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맘껏 사용할 수 있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예언을 하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新)신학자들은 방언을 금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본시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고전14:2).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된 것을 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니 마귀와 귀신들도 기도를 방해할

수 없지요. 그러니 방언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직통전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방언기도로 무장하라

또한 방언은 마음의 곤비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패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사28:11~12).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상패함이 없고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많이 피곤해합니다. 이럴 때 방언기도를 하면 기쁨이 넘치고 피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방언기도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므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미국에 사는 어느 성도가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방언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하도 세계 나오니까 차를 세우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바로 그 순간 앞의 차부터 여러 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성도가 우측으로 핸들을 꺾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했습니다. 이 좋은 방언기도를 왜 안합니까? 저는 방언기도를 하면서 ‘이 좋을 걸, 이 좋은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하건만 저들이 믿지를 않아요.’ 하며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는 내게 유익을 주는 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영적 탐지기와 같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 삶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래에 관한 것까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한 것을 감사했습니다(고전14:18).

여러분, 영적 대각성은 나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불을 밝혀야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깨어나야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방언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에 불을 밝힙시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14:15).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대미문(前代未聞)

2020년은 참 여러 가지로 기념비적인 해가 될 듯싶다. 좋은 뜻으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진짜 21세기가 시작된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코로나19, 기후재앙 등 우리 인류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감기나 걸려야, 그것도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나 쓰던 마스크를 모두가 일상으로 쓰고 다닐 줄이야 어찌 알았나? 모여 먹고 마시는 일상이 인생의 낙이건만 그조차 제한 받고 조심해야 할 줄 어찌 알았나 이 말이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다. 기후재앙의 심각한 전조가 그것이다. 이상기온이니 자연재해의 뉴스를 접해온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백년간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했다고 한다. 인류가 석탄 연료를 쓰기 전에는 백만 년에 걸쳐 오르던 것이 백년 만에 이리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30~40년 안에 0.5도가 더 상승할 것이라 한다. 1도 정도 오르는 게 뭇대수란 말인가 하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를 인간의 체온으로 치환하여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사람의 정상체온이 36.5도라 하는데 체온이 1도 오르면 신체기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1.5도 이상 올라 38도가 되면 고열이라 하고 당장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되면 지구의 자정기능이 상실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과연 지구촌에 어떤 재앙이 닥치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앞으로 30~40년 후의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이 근래 6, 7년의 상황들이 쌓여 30~40년 후에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하니, 따라서 회복의 기회가, 재기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지금 당장 지구촌의 건강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되돌릴 시간이 없다는 경고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클린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뉴스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 받는지 모르지만 자연은 숨을 얻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긴 하나 자연 전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자정작용의 일환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분의 계획과 섭리대로 역사는 진행된다. 예수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오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지구촌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며 살아본들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하고 음부로 떨어진다면 다 무슨 소용인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할 때인 것이 분명하다.

Henry Han

주님을 따라 걸어라

어느 날 오지 선교를 갔다가 마을로 돌아오던 선교사가 밀림 속에서 길을 잃었다. 밀림 속은 어둡고 무더웠으며, 방향도 알 수 없음에 좌절하고, 맹수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다. 그렇게 헤매던 중에 다행히 원주민을 만났고, 선교사는 반가움에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원주민은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밟고 나가는 곳이 길이니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말했다. 과연 열마쥬 힘겹게 쫓아갔더니 마을이 나왔다. 원주민은 다시 말했다. “길은 아는 사람만이 가는 것이니 혼자 다니지 마시고 꼭 아는 사람 뒤를 따라 가십시오.” 땅은 그대로 두면 여전히 땅이지만, 그것을 밟고 걸으면 길이 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전혀 새로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너무 길어지는 탓에 두려움과 좌절감이 가득하다. 그러나 사방이 막히고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데도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예비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롬8:28).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이지 않던 길을 내셨으며(수3:17), 풍랑 이는 호수의 베드로가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 위에 새로운 길을 내며 걷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마14:29).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그 무엇이나, 그 누구 때문도 아니니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말자. 혼자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길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보자.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 아버지께 나아가라’(요14:6).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열매를 맺자!

여보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요15:5)라고 말씀하셨네.
왜 하필이면 당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의 가지로 표현하셨을까? 레바논에 백향목도 있고 잣나무도 있는데 말일세. 그 이유는 그다음을 보면 알 수 있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실 포도나무 가지는 쓸모가 없는 나무라네. 가늘고 비틀어져 재목으로도 합당하지 않다네. 내가 알기로 포도나무 가지는 불꽃이 너무 튀어서 불쏘시개로도 합당치 않은 걸로 알고 있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

겠느냐”(겔15:2~5)라고 하신 게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 아니겠나.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포도를 맺는 일이라네. 열매를 맺을 때만 그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러려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 떨어지면 무용지물이야.

여보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영 쓸모없는 자들이지.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귀한 자가 되었다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건강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열린다네. 또한 예수로 인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네(갈5:22~23).

아무썽에도 쓸모없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살게 나. 밑에서 누군가가 마구 흔들어도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있게. 그래서 삶 속에 귀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많은 사람이 맛보게 하게.

朋友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는 깨닫는 자의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다. 깨달은 만큼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

현대인은 감사할 줄 모른다. 그 이유는 받은 것이 없다는 것.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해 신세타령만 하고 있다.

감사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열매이다. 감사는 ‘감사하자’는 구호와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오게 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그것이 바로 ‘감사’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고 했다.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영혼이 깨어있는 것과 감사는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뜻이다. 직역하면 ‘깨어있어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이다.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것은 기도

와 아울러 감사다.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이며, 은혜를 깨닫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한다. 감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인생은 해석이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도, 불행하게 할 사람도 유일하게 나다.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못한다. 내가 불행하다 여기면 불행할 것이고, 행복하다 여기면 행복할 것이다.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 지금 삶이 눈물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해석한 다윗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해석만 잘하면 눈물골짜기가 변하여 축복과 기쁨의 골짜기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하면 행복은 꽃을 들고 찾아올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

임택함 목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2008년 6월 2일, 한국-홍콩-남아공-브라질 상파울루-페루 리마를 거치는 38시간의 비행 끝에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도착했습니다. 평신도, 자비량, 인맥, 지인도 없고, 누구하나 의지할 사람 없는 땅에 온 것입니다. 처음 2년은 딸 아이 대학교 공부시키고,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선교하지? 무엇을 하지?’로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가져온 돈 3천만 원은 바닥이 났습니다. ‘선교가 뭐지? 왜 하나님은 우리 세 가족을 이 땅으로 보내셨지? 나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공부도 못했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으며, 성경지식도, 가진 물질도, 믿음의 형제들도 없는 정말 평범한 요리사였는데, 왜 나를 보내셨을까?’ 언어공부도 3개월 정도 했는데 도저히 젊은이들을 따라가지 못하여 스스로 독학하였으며, 먹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처럼 살았습니다. 2012년 10월경, 브라질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방문하여 한 달간 집회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귀머거리가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나도 사용하시려나? 어디에 쓰시려나?’ 페루로 돌아와서 시골교회의 초청을 받고 딸이 통역하며 주일예배를 드리고 성령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고 목사님과 우리 일행만 남았는데, 어떤 여자 분이 들어와서 몸이 아픈데 기도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으악” 소리를 지르고 토하며 나가더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성령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5월, 하나님께서 뿌듯하게 밀림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또 바로 순종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

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 임이라”(사 43:19~20) 뿌듯하게 리마에서 침대버스로 평균 20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이었습니다. 이 샅짐을 부치고 우리는 비행기로 이동하였습니다. 아내와 딸이 안데스산맥 4,816m의 고산을 산소부족으로 버스를 타고 넘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뿌듯하게 도착하여 6개월이 지났지만 교회건축과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2012년 7월경 한국의 00교회와 우연히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기적과 함께 담임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후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매달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비량에서 탈출하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리마에 도착 후 고민하면서 직접 전도지를 만들어서 페루 북쪽에서 남쪽까지 3,800km의 넓은 땅을 밟으며 전도지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언어도, 초행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히 큰소리로 전했던 경험을 살려 밀림에서도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못하니 문장을 달달 외워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 1월 1ha의 땅을 350만 원에 사서 교회와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밭을 내딛고 나가는 담대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여기저기 모르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보내주셔서 첫 번째 예배당을 1년 동안 조금씩 건축했습니다. 큰일은 기술자가, 작은 일들은 제가 재료를 사다가 직접 건축하여 완공하였습니다. 리마에서는 매월 나가는 집세와 학비, 생활비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아왔는데 집세와 학비가 안 나가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교회건축 이후 토요일마다 딸 문초록 선교사가 50~10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 병원, 거리, 교도소, 시청, 경찰서, 공원 등을 방문하여 노방전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사역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던 2015년경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현금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받았습시다. 근데 이 현금이 교회와 목사님들을 저울질하게 만드는 교만 덩어리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역 가기 전에는 ‘오늘은 얼마나 줄까?’, 사역을 마치고 나면 ‘이것밖에 안줘?’로 나를 괴롭혔습니다. 사탄은 돈으로 유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현금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많이 주면 8만원, 적게 주면 2,500원도 받았습시다. 돈의 노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는 장사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성경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는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일체 현금을 받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실천에 옮기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을 주시는데 왜 현금을 받아?’ 이후로 지금까지 물 한잔 외는 받지 않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100명이 넘으면 현 예배당이 비좁으니 건축의 신평으로 알겠다고 기도했는데 몇 주 동안 계속 100명이 넘어서 건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콘크리트 철근으로 지었습니다. 이 모든 현금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셔서 조금도 부담 없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건축을 하였습니다. 한번은 지인과 함께 에파도르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페루 북쪽 조그만 마을에서 어부들의 데모로 도로가 막혀 지날 수 없는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사정을 해도 안 되고 해서 제가 딸과 함께 데모대로 갔습니다. 누가 리더냐고 묻고 리더를 만나서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고 물으니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200명 정도 되는 데모대 속에서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서 전도하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강한 자들도, 술 취한 자들도 꿈쩍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권세 앞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초석 목사님의 사역은 유튜브로 거의 다 보았으며 따라하면서 모방까지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봐야지 했는데 2012년부터 8년만인 2020년 1월에 처음으로 만나 뵈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바쁜 목사님께서 지금도 제가 카톡을 보내면 즉각 답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바로바로 응답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본받고 모방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예배 전에 귀신을 쫓고 시작합니다. 2020년 현재, 교회를 건축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을 다녀온 후로 코로나로 움직일 수도 없는 데도 이곳은 그래도 자유로움과 자재를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락해서 8월 21일 세 번째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하다 보니 거의 기술자가 다 되었습니다. 이곳은 강물이 차는 지역이라서 교회를 땅에서 1미터 정도 위에 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기(雨季)에 밀림에 비가 많이 내리면 1~4월까지 강물이 마을을 덮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건기(乾期)가 되면 강물이 빠지고 정상적으로 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부지는 우기에도 10년간 물이 덮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 연말이 가기 전에 거의 마무리 되리라 봅니다. 많은 분들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세 번이나 교회를 건축하느냐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명령하시면, ‘예’하고 즉시 순종하여 밭을 내딛고 나가면 흥화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밭을 내딛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후원해야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이루어집니까? 절대 할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밭을 내딛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은행에 많은 잔고를 가지고 평평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 통장 속의 숫자일 뿐이고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죽어서 돈 가지고 갈 것 아닙니다. 청지기로 맡겨주셨으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일하라고 돈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여 번 내 돈이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교회, 전도, 선교를 위해 많이 후원하십시오. 가난한 이웃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십시오.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보물을 쌓기 바랍니다. 예수중심교회 지체 여러분들, 성경의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페루 아마존 밀림에서
문갑권 선교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